

# 안보에 대한 책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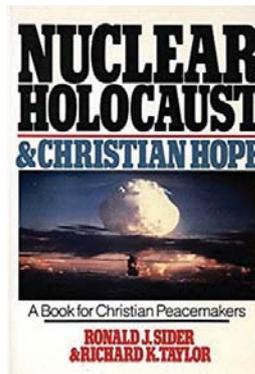
##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안보”(安保, security)는 문자 그대로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이해된다. 따라서 안보에는 군사력이나 외교적 수완이 중요한 요소로 뒤따른다. 뿐만 아니라 조금 넓게는 전쟁과 폭력의 문제 또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보라는 주제를 다른 사안들 — 평화, 전쟁, 폭력, 민족주의, 이웃, 인류애 등 — 과 별도로 논의할 수 없다.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종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윤리의 원천과 골격으로 삼는 신앙 체계이며, 할 수 있는 한 하늘과 땅의 시민권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공동체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안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이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핵무기 및 핵전쟁의 사안**과 좀더 근원적으로 연관이 되는 **평화의 사안**을 염두에 두고서 책갈피를 펼치고자 한다. 총 4권의 책자를 선보일 터인데, 앞의 두 권은 핵무기와 핵전쟁에 대한 것이요, 뒤의 두 권은 평화(및 반평화)에 대한 것이다.



Ronald J. Sider & Richard K. Taylor, *Nuclear Holocaust & Christian Hope: A Book for Christian Peacemaker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2).

사이더(Ronald J. Sider, 1939-)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한국 IVP 2009년 간)으로 많이 알려진 복음주의 행동가이다. 원래 메노나이트 전통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고, 캐나다 IVCF 사역에 참여했으며, 후에는 이스턴 침례교 신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오랫동안 <복음주의 사회 행동>(Evangelicals for Social Action: ESA)의 대표로서도 활동했다.

공저자인 테일러(Richard K. Taylor)는 웨이커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개발과 평화 사역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이 책자는 제목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핵전쟁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대파국을 일으킬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극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술되었다. 비록 구소련의 붕괴 이전 냉전의 상황에서 쓰인 35년 전의 작품이지만, 아직껏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여겨져 소개하는 바이다. 필자는 이 책자가 최소 두 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첫째, 메노나이트 입장의 전쟁/평화관을 배울 수 있다.** 한국은 최근 70년 가까이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늘 전쟁 도발의 위협 가운데 지내 왔으므로 전쟁에 대한 관점이 고착화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의 기독교 역시 대체로 의전론(義戰論, just war theory)을 신봉하는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전쟁을 당연시하는 데 익숙하다. 메노나이트 전통의 평화론(pacifism)은 이런 면에서 — 그 입장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둘째, 핵 평화론(nuclear pacifism)이 대두하게 된 원래의 역사적 정황과 만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는 전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극적 입장이 있어 왔다. 주된 견해는 “의전론”으로서 어떤 형태의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참여해도 신앙과 배척되지 않는 —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이다. 소수적 견해인 “평화론”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 능력이 알려지면서, 핵전쟁의 경우에는 의로운 전쟁과 불의한 전쟁 사이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전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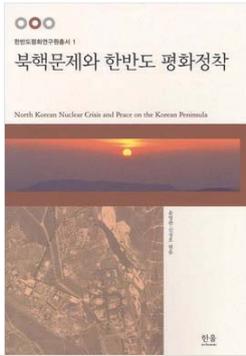
와 평화론자가 의견의 합치점에 이르렀으니, 핵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평화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핵 평화론”이다.

두 저자의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1-3장]는 핵전쟁의 위협이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실증적 자료와 설득력 있는 예시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제2부는 평화론의 핵심적 주장 내용을 담고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의전론에 대한 비평을 시도하고, 6·7·8장에서는 평화론의 성경적·신학적 근거를 상세히 개진한다. (물론 반론에 대한 응수도 빼놓지 않고 있다.)

제3부[9-12장]는 평화론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도움 정보와 안내가 가득 차 있다. 제4부[13-15장]는 비(非) 군사적 방어 체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평화론은 폭력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폭적 비저항(total nonresistance)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거부한다고 해서 국가의 방어조차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한다. 비결은 비군사적 방어 체제의 구축 — 비폭력적 저항과 비협조를 포함하여 — 에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제2부의 내용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고난의 감내 등과 관련한 평화론자의 순수한 결의에 다시금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그런 희생적 자세를 공적 영역에서도 똑같이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이더의 책자를 존 스토티의 글 — “전쟁과 평화,” 「현대 사회 문체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국 IVP 2011년 간), pp. 113-155, 특히 126-129 — 과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다.



윤영관 · 신성호 엮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8).

이 책은 한반도 평화 연구원 총서 시리즈의 첫 권으로서 한국이 당면한 북핵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뛰어난 논문집이다. 이 논총을 수작으로 꼽으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책의 전반적 짜임새를 볼 때 일관성 있는 기획과 편집이 돋보인다. 또, 이런 제목의 논문집으로서 꼭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빠짐없이 선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주제의 기고자들이 전문성과 전달 능력을 아울러 갖춘 가운데 글을 작성했다. 필자와 같이 북핵 이슈에 대한 문외한도 이 책을 통과하면서 훨씬 더 실정에 밝은 사람(informed layman)으로 바뀐 것 같다.

이 책자는 모두 3부에 걸쳐 8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제1부 핵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는 두 편의 글이 등장한다.

제1장/ 이근욱, 국제체계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제2장/ 전재성, 기독교와 핵

제1장에서 발제자는 북한의 핵개발이 네 가지

근거로 볼 때 국제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제2장은 이 모음집에서 유일하게 핵문제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 윤리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현실주의를 제시한다.

**제2부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 국제적 사례**에는 역시 두 편의 논문이 할당되어 있다.

제3장/ 조동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제4장/ 김준석,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제목이 나타내듯 이 두 가지 논문은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및 폐기)에 대한 지정학적 발전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고 있다.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글이다.

**제3부 북핵위기와 국제적 해결 노력: 평가와 교훈**은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각각 미국·중국·북한·한국의 정치 외교적 파노라마를 생생히 그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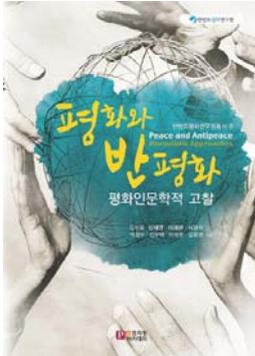
제5장/ 신성호, 1·2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대북 정책

제6장/ 김흥규, 중국의 북핵외교

제7장/ 황지환,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협상

제8장/ 백종국, 북한 핵문제의 국내정치

네 편의 글들을 읽으면서 필자가 표면적·피상적으로만 듣거나 알고 있던 정보들의 심층적 의미에 접할 수 있어서 유익이 매우 컸다.



김선욱 외 지음, 『평화와 반평화—평화인문학적 고찰—』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3).

평화와 반평화를 병치시켜 책 제목으로 삼은 것은, 반평화적 태도와 행습이 자리잡고 있는 한 평화는 들어설 여지를 허락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 이리라. 어쨌든 이 책은 반평화의 독아를 드러내어 제거함으로써 평화의 길이 훤히 뚫리도록 하는 데 발간의 취지가 있다.

역시 한반도 평화연구원 총서 시리즈 가운데 속해 있어 [이 책자가 아홉째 권이다], 앞서 소개한 모음집과 형식상 비슷하리라는 예측을 일으킨다. 과연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평화(및 반평화)에 연관된 사안을 천착하는 데 자신들의 기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논총에 실린 8편의 저자와 제목은 아래와 같다.

**제1부 철학과 문학에서 본 평화와 반평화**

- 제1장/ 김선욱, 평화와 반평화: 평화의 윤리학적 조건
- 제2장/ 심혜영, 반(反)평화적인 삶의 문화와 그 근거
- 제3장/ 서경석, 한국문학을 통해 본 이웃 사랑의 철학

**제2부 제도의 관점에서 본 평화와 반평화**

- 제4장/ 이해완, 폭력의 내면적 원인과 평화의 내면적 토양
- 제5장/ 전우택, 인간의 공격성과 한반도의 평화
- 제6장/ 이국운, 민주적 연방주의와 평화

**제3부 성서의 관점에서 본 평화와 반평화**

- 제7장/ 박정수, 초기 기독교의 ‘반-유대주의’ 담론과 평화의 문제
- 제8장/ 김회권, 역대기의 민족화해 사상

필자 개인적으로는 제2장, 제5장의 내용이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계몽적이었다. 또 제6장에 등장한 공간 개념은 평화의 주제와 상관없이 흥미로웠다.

아쉬운 점은 이 논문집이 1권만큼 높은 수준의 기획성[형식상]이나 응집성[내용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개 가운데 2편의 논문은 이미 다른 곳에 실린 것을 이 책자의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반평화”라는 주제 자체가 “북핵 문제”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게다가 1권에서 받은 좋은 인상이 필자 내면에 기대 이상의 높은 잣대를 형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아쉽기는 하다. 특히 216쪽 하단에서 217쪽 상단까지의 아홉 줄은 216쪽 상단과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어, 원고의 교열이나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박충규, 「종교의 두 얼굴 — 평화와 폭력」 (서울: 흥성사, 2013).

책자의 표지 안쪽 저자 소개란에는 저자가 윤리와 사회 분야의 학위 소유자로서,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 중임을 밝히고 있다. 「종교의 두 얼굴」은 기독교 2천 년의 역사를 평화의 관점에서 탐구한 평화 연구서이다.

이 저술이 역사적 고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이해가 시대별로 어떠한지, 또 어떤 개념적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내용 가운데 1장과 2장은 각각 그리스와 로마의 평화를 다루고, 그 뒤부터서야 비로소 기독교 시대의 평화 개념을 소개한다. 3장부터 13장까지의 제목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III. 구약 성서의 평화 — 샬롬
- IV. 예수의 평화
- V. 초기 교부들의 평화
- VI. 제국화된 기독교의 평화
- VII. 기독교 세계의 평화 — 파스 크리스티
- VIII. 종교개혁자들의 평화
- IX. 재세례파 신앙 운동과 평화
- X. 웨이커 신앙 운동과 평화

- XI. 독일 개신교의 평화 운동
- XII. 미국 가톨릭교회의 평화 운동
- XIII. 세계 교회 협의회의 평화 운동

저자에 의하면 초기 교부들의 시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비폭력으로 대응했으나 어거스틴을 필두로 의견론이 대두되었고 그 경향은 종교개혁자들의 시대까지도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오직 재세례파의 비폭력적 무저항주의 전통과 웨이커의 신앙 운동에 이르러서야 예수의 평화 사상은 본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 세기 후반부터서야 비로소 전 세계의 교회들은 다시금 평화주의적 전통으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교회가 평화를 추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권력과의 결탁을 마다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 저자가 책의 초두에서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탐심에 의한 폭력이라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자를 한 장씩 읽어 가노라면 저자가 시도한 이 역사적 탐구가 얼마나 방대한 (동시에 얼마나 인고를 크게 요하는) 작업인지 절감하게 된다. 그래도 그 덕에 책을 읽은 이들이 좀더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평화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로 역임하였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